

한일미래포럼 보고서

미디어팀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14016031

윤석만

두 번째 한일미래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제 선정은 지난번에는 강제 징용 이란 무거운 주제를 해보았으니 이번에는 거기에서 벗어나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해 보았으면 하고자 미디어라는 분야로 선택을 하였고 예상대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요나고 에서 두 번째 미래 포럼이 있으리라 예상을 했지만 한일관계의 흐름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좋지 못했고, 요나고 행 비행노선마저 끊겼기에, 전화위복이라는 마음으로 오사카라는 아직 제가 방문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여 여러 곳을 여행도 즐기며 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는 분야를 토론하면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개인마다도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관점 차이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같은 언론을 본다고 해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의견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토론을 했던 일본 친구들 역시 제가 가져온 한국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 기사를 확인해보고 다양한 기사에 대해 한국인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고민하고 있는지 토론해보면서 깊은 생각에 대단히 놀라워했음을 지금도 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번에는 토론에 대부분 시간이 편성되어 있어서, 좀 더 활동적이면서 주제 말고도 다양한 분야를 얘기해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마니포를 찾아보는 과정도 지난번에 비해 어려웠던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쉬움도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이 포럼을 제가 2번 연속 참여한 이유는 이 포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얘기를 할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만, 함께 만들어 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상대방의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는 동기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기회를 주는 포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듣고 개인의 생각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생각을 경청해야 하기에 언어를 이해할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 높게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언어 역시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 다양한 감정을 생각해야 하기에 더 수준 높은 언어의 공부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 취업 준비의 시기로 들어서기에 다음 포럼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포럼이 제가 일본에 대해 그 동안 가진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양국의 모습을 한발 멀리 떨어져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임에는 동의를 할 수가 있다고 자신합니다. 2박 3일 동안 잠도 5시간 자면서 힘든 토론을 이어가고 다들 졸린 눈을 비벼가며 한 일정이었지만 회의를 정리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편하게 얘기할 수 있던 그 시간을 함께한 한국인 친구들, 일본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포럼에 참여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다른 대학생 또는 한일관계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얘기라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단 와서 가볍게 즐겨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럼은 서로가 싸우자는 의미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켜보자는 의미가 더 큰 포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친구들도 저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좋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라는 것을 신청할 때 기억하시면 좀 더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 일하는 미디어 조원들에게 행복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다음 포럼에 참여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